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리-2143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87年(檀紀 4320年) 1月 31日 第 119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益炫  
인쇄인 在旭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종구 필동 3가 26  
전화: 267-8568  
274-7449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 丁卯年 새아침 東國의 첫 雄走



### '87년 신년인사회 盛了

'87년도 本会 新年人事会가 지난 14일 오후 6時 30分 鄭在哲 본회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모교간부, 본회임원등 1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鄭회장은 『우리 東国人이 하나로 뭉쳐 응집된 힘을 나타낼때 새로운 웅비동국의 청사진이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이로인해 응집된 東국의 울력이 先進 東國創達의 碇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노스웨스트 오리엔트가 로스앤젤레스로 매일 운항합니다.

아시는분은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로 가십니까? 일주일 중 어느날이라도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이 있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시오. 미국 제1의 태평양 횡단 항공사가 드리는 또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는 지난 39년간 한국과 미국간을 계속해서 운항해온 항공사로서 매일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항하는 항공편을 비롯하여 씨애틀행 눈스톱편을 통해 가장 빠르게 미국으로 모셔드리며 도착 즉시 방대한 국내선 연결망을 통해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는 불편 없이 미국의 주요도시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승무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일등석과 익제큐티브 클래스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리갈 임페리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여행 경험이 많으신 분이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전화주십시오.

5:10pm	씨애틀(착 9:50am)
4:30pm	로스앤젤레스(착 10:05am)
1:45pm	시카고(착 12:15pm)*
12:50pm	뉴욕(착 3:20pm)
12:50pm	샌프란시스코(착 12:40pm)
	호놀룰루(착 8:55am)

\* 1986년 4월 운항제개



People who know...go  
**NORTHWEST ORIENT**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해 주십시오. ● 조선호텔 753-6106/9, 755-0416/7, 777-9786 ● 웃네호텔 778-8240/1 ● 힐튼호텔 752-2394/5 ● 소공사무실 778-0181/7 ● 반도호텔(부산) 44-2240, 462-3443

# 丁卯年 신년인사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14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서

87년도 본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14일(水) 6시30분 鄭在哲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李首冠 모교총장등의 모교간부, 본회임원등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렸다.

동국 80주년을 톤튼한 뿌리로 삼아 올해도 약진동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기진 이번 행사이에서 鄭 회장은『금년 한 해도 東國인다면 폐기와 긍지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모교와 나라의 발전에 더욱 앞장서는 보람찬 87년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면서 이어 李 모교총장도『학교와 동창회가 더욱 긴밀히 연결, 東國을 곳곳에 빛낼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申益炫 회장이 입원 재추대 및 입원후원, 이사회비납부 등 사무국 공지사항을 간단히 전달하는 것으로 1부순서를 모두 마쳤다.

이어 2부에는 참석자들이 간단한 음료를 들면서 서로 신년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으며, 오랜동안 담소를 즐기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우의를 다짐하기도 했다.

## 경영학과신년모임

2월 6일 흥릉갈비집서 경영학과 신년모임이 오는 2월 6일 오후 7시 강충동 흥릉갈비집에서 있을 예정이나, 趙熙榮(63·경영), 成百幸(66·경영) 명예회장 및 正基 회장, 康鎮元(68·사무국)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 신년인사를 나누고 보다 결속된 모임으로서의 동창회를 만들고자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된다.

## 두금회 신년회

지난 26일 파레스호텔서 두금회(62국문과 졸업동기회 회장=이철호)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6시 명동파レス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30여쌍이 모여 신년회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결과 입원진은 모두 유



일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날의 모든 비용은 회장으로 유입된 이월호동문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이며 현재 계열사 관리부장인 조석영총운의 세녀편 회장으로 2

부순서를 마련, 밤늦도록 돈독한 점을 나누었으며 회관전립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 모두 뜻을 같이하기로 결의하기로 하였다.

## 本會 사무국 이전

### 종로2가 성화빌딩 12층으로

本會 事務局이 2월 7일(土) 종로구 관운동 192-18 성화빌딩 12층으로 이전하였다.

동문상호간의 활발한 교류확대 및 본회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이전한 본회 사무국은 기존의 2대의 전화에 1대를 추가해 3대로 운영, 문동들의 상호교류의 침구역으로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기존의 수동식 통문기과 및 정보교환을 전산화하기 위해 컴퓨터를 도입, 장치할 것이다.

한편 새로 이전한 사무국은 종로 2가 제주은행 앞 성화빌딩이며, 사무국 건평은 1백평으로 이전한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소: 서울 종로구 관운동

192-12 성화빌딩 12층 동국

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우편

번호 110)

◆전화번호

(代)733-3993, 733-3991~3

行大院 사무실 협판식 오는 2월 9일 실시예정

行政大學院 동чин회(회장=尹鎰) 87년도 新年人事會가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 타워호텔에서 회장尹 회장을 비롯해 김인홍원장, 양창식동문(국외교제위원회)과 박경희 회의장 및 현 회장단등 1백여명이 참석한 성대한 치러졌다.

이날人事會에서는 신국주 정윤무 민병천교수 등 前 원장에게 감사의 선물로 풍성되었으며 金洛天副회장(고려원 대표)이 5백만원의 기금을 회사해 장충단 대금당원 S·D빌

## 新年辭



### 鄭在哲 회장

「丁卯年, 희망의 새해 아침이 찬연히 밝았습니다. 우선이元旦의 희망과端氣가 우리 東國 대학교와 모든 東國에게 금년내내 함께 하시기를 祝頤합니다.

친애하는 7万 東國家族 여러분!

1987년 금년은 우리 東國과 민족史에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東國이 지난해로 개校 80周年을 맞는 영광속에 올해는 새로운 踏進의 元年으로 삼아야 하며 社會의 모임도 지난해는 아시안 게임성공 개최와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등 우리 사회의 政治·經濟·社會·文化·教育·外交 등 모든 방면에 걸쳐 先進祖國創達을 위한 종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금년은 그 成敗를 결정짓는 준비작업을 마무리 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순간을 평범한 마음가짐으로 맞을수는 없으며 先끼과 後손에 부끄럽지 않은 結果를 얻기위해서 더욱 誠實한 자세로서 신회사회를 創出하는데 진력하여야 할것이며 한편으로는 母校와 東國家族의 새로운發展에도 전력 경주해야 할것입니다.

친애하는 東國家族 여러분!

앞에서도 跛趺듯이 우리의 母校 東國은 이미 지난해로 80주년을 맞는 전통의 명문으로 밝들었을, 이제는 명실상부한 민족의 大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7万 東國人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속의 東國으로 도약 하여야 하겠기에 금년에는 가일중 배전의 힘을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 중요한 한해이기에 본회에서는 全 東國의 자료를 수록될 컴퓨터 시스템을導入 등에 相互間의 교류확대 및 힘의 결집을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全 東國인의 구심점이 될 慈惠會館을 建立을 더욱 추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東國人이 하나로 풍처 응집된 힘을 나타낼때새로운 빛을 보게 될것이며 윤진된 東國의 물결이 先進 東國創達에도 磚石이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東國家族 모두에게 신뢰와 和合 그리고 부처님의 기호가 함께 하기 를 기원합니다.

1987년 元旦

## 東女會신년인사회| 지난 20일 호텔 앤서더

東女會(회장=안재란) 신년인사회가 지난 20일 호텔 앤서더에서 安 회장을 비롯해 윤을순초대회장을 비롯해 印丁一(72행원)禹順耕(60정치) 등문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86년도 동녀회 사업보고 및 동녀회장의 총동창의 부회장과 수대동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임총무에 金태전(63영문) 등문을 선임했다.

## 象院會 신임회장

구립 22일 申鉉礪동문 교육대학원 출신으로 한국화를 전공하는 동문들의 모임인 象院會의 회장으로 申鉉礪동문이 피선되었다.

구립 22일 있었던 징기총회 겸 송년모임에서 새 회장으로 피선된 申鉉동문은『 더욱 결속된 모임으로서의 象院會를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조만간 상원회 회원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갖고 그 수익금을 회관건립기금에 보낼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전진기로했다.

인

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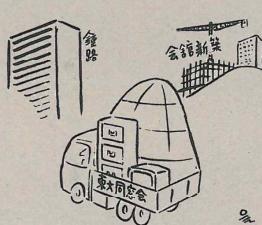
지난號(118號 86년12월31일자) 7년 東國인의 밤 운상洙 수혜자 명단中 脱字가 생겨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대상에는 윤요환(68·경영) 동문으로 상품으로 V·T·R이며, 1등상은 잠석조(62·법학) 동문으로 상품은 칼라TV이며 삼성냉장고와 탈수기는 채규봉(83·經碩) 동문과 조남준(65·법학) 동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8년 동문동정記事中 金浴天의 溢字는 溢字로 고치며 金浴天동문과 李喆鏗동문의 사진이 바뀌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 東友漫評

鄭雲耕



“發展을 위한 위대한 出發”

한해가 또 밝습니다. 水却의 수레비퀴는 어김없이 구르면서 우리를 새로운 시간의 지평으로 인도하고 있읍



吳緣園 이사장

니다. 중생의 삶이란 어떤의 미에서 일상의 반복인듯 느껴집니다. 회향이 절망으로 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벽장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희열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를 흔히 「불화실성의 시대」로 규정 짓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정신적 상황은 이 시대를 드리우는 불연속성으로, 정치 경제 ·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도 정신적인 허탈이 팽배해져 가는 것은 바로 이런 백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회향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 끌고, 볼수있는 눈이 달해진 것은 아닌지 반복해 볼 일입니다.

이생의 아이러니는 결코 세속적 욕망의 충족으로 풀어질수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삶, 특히 불교가 가르치는 예지의 빛이 소중한 가치일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열반이란 이를테면, 영원의 彼岸, 삶의 근거, 우리들 마음의 고장을 성장하는 표현이 될수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열반으로 향하는 구도의 나그네이며 그같은 삶이야말로 존경받을수있고, 철가치를 부여할수있는 삶이리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불유쾌한 일들은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습니다만 긍강산립 건설, 개현시비, 학생소요가 많았던 일 없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야할까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위의 근본 원인은 자아를 비우지 못한

## 자비의 法音이 온누리에 페아리 치길.

때문으로 봅니다. 그릇된 나, 이기심으로 가득찬 나를 본래의 나와 혼동했기 때문에 빚어진 인과의 응보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암라파달리」라는 妓女가 있었습니다. 미모와 재치가 뛰어난 여인으로 그녀의 무도회장을 들 열옹호걸들로 가득차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날 그녀는 텁빈 무도회장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연유를 알아본즉 모두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 갔다는 것입니다. 틈틈 화가난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능기하는 부처님의 매력에 호기심을 가지고 부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도 죽여버리면서 이제까지 알수 없었던 그 지혜의 가르침에 벙친 감동을 느끼고 부처님과 오백제자를 들을 자신의 집으로 정중히 초대하였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그녀는 기쁨에 겨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여래께서 저는 뜻 사람들의 칭송을 들어왔으나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었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라파달리여! 세상에는 두가지 기쁨이 있으니라. 하나는 얻는 기쁨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주는 기쁨이라. 이제 그녀는 주는 기쁨의 의미를 아는도다!』

성취하고 올라가고 얻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주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차원높은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얻는 기쁨에는 놓치기 안타까운 두려움이 따르지만 주는 기쁨은 그 자체로 한없는 행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얻는 기쁨의 만족에만 내 삶의 목표를 설정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새해부터는 주는 기쁨의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삶, 그자비의 法音이 누리에 페아리 치는 한해가 되기를 빕니다.

나루시방삼세 석가모니불!

1987년 새해아침

黃岳山 기습에서

## 방황하는 정신의 암주와 영원한 삶



李智冠 母校총장

歲序가 바뀌어 丁卯年 새 이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무한한 시간속에서 인위적인 편리를 위해 그어놓은 치어이지만 이 아침에 이르러 지난 한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까.

지난 한해는 國內외의 으로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 全國民의 단합된 슬기로 無事히 극복해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대학사회도 일일이 열거할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전東國의 응결된 의지와 간절한 애교심으로 밤을 향한 초석의 한해를 만들수 있었음을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순간, 여러분의 시간 荣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돌아켜볼 때 지난 한해는 본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 「東國80周年」을 기념하는 각종 학·예술행사가 개최되어 東國의 이미지를 널리 고양한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도 東國은 東國人만의 東國이 아닌 민족의 동국이요, 세계의 동국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위해서는 튼튼한 내실을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국인 여러분!

본인은 오늘 새아침을 맞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東國의 진학정신에 대해서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本校는 1906년 제국주의 열

강들이 국境을 유린할때, 불교계의 선각자들에게 의해 불교 정신에 입각한 教育救國의 목표로 건립되었습니다. 불교교육의 이상은 진정한 自我의 발전에 있으며 진정한 自我란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 그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東國의 建學精神은 곧 우리 모두가 험난한 주인의식을 갖는 뜻으로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과 자기소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東國의 건학정신은 국가와 민족의 그 마지막 책임을 감당하는 정신이며 이와같은 정신이 곧 東國인의 기본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미지 않아 東國을 떠나지마 東國은 영원히 민족앞에 우뚝솟아 책임질수 있는 주인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모두는 80여년간 밟아온 東國의 建學精神을 살기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주인으로서 東國發展에 하나님의 조선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굳이 이 자리에서 87학년도의 사업계획이나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東國大學校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해결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탄탄한 内實과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0년이라는 어려운 여사는 着根과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많은 장점도 있지만 탄성과 안일이라는 버려야할 부정적 측면도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全東國家族은 신기일전의 새로운 각오로 東國의 内實과 도약의 기틀을 다져 나아갑시다. 본인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深厚의이고 진실적인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여러분의 소신있는 학사를 뒷받침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全 東國인의 가장에 부처님의 가호가 있으시길 바라며 신년사에 가를합니다.

丁卯年 元旦

## 丁卯年 새아침에



象院會에서는 동창회관건립기금모금 및 후배들의 장학기금확보를 비롯, 동문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시 가능한 정도의 작품이 모집되면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申회장



- ▲ 日本 東京美術美術學校 修學
- ▲ 東國大 教院 美術科 卒業
- ▲ 白陽會 企畫 創立 8회 文化公報 長官賞
- ▲ 國展入選 選7回
- ▲ 國展26回, 29회 特選
- ▲ 美洲 L.A. 三一堂畫廊 個人展
- ▲ 湖岩美術館 母情, 姑婦 外 2點
- ▲ 韓國書畫作家協會 副會長
- ▲ 國立現代美術 招待作家 (83. 84. 85)
- ▲ W. U. M. 世由平和藝術賞受賞

水原支部  
亞洲支會

# “水原을 움직이는 東國의 人脈,”

##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情으로 다진 東友會

며 그래서 수원에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東大를 나와야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현재 同會 회장을 맡고 있는 洪恩日(60·영문)동문의 경우에도 국내 유력월간지 J誌 까지 다가온 국會議員 선거에서 수원의 유력人事로 언급할 정도로 수원에서의 政治 유력인이며, 金東鎮(79법학·수연지방법원 판사·박성훈(74法·박성훈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법조계 金重愛(58불교·支會부회장, 불교사상연구회 理事長) 등등을 비롯한 종교문화계 등 수원에서의 東大 Power는 수원의 움직임으로 모임도 자주 갖는다고 한다.

문화의 古都 수원에서 東國의 융비리를 짓고 東友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東友會가 있어 찾아보았다.

洪恩日(60·영문) 회장을 중심으로 현재 3백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수원東友會은 타 동우회보다 회원이 많은 면(?)으로 모임도 자주 갖는다고 한다.

1년에 한번하는 정기총회를 비롯해 2달에 한번씩 하는 운영위원회, 임학·종교계제에 갖는 졸업생 출업기념 및 동문회 입회식과 입학자에 대한 임학기념식, 여름철에 갖는 회원단 합여행, 가을에 갖는 동우체육 대회 등 그 종류도 다양해 수원에서의 東國인의 단합을 느낄 수 있었다.

3백여 회원중에 특히 教育界가 1백20여명이나 돼 수원의 教育界는 東國판이라고 밝히는 洪會長은 「지금은 글을 대이자 유통이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東友의 情을 쌓아 종교문화의 지원거리가 될수 있도록 해야죠」라고 고민자의 첫만남에 수원지부의 활동을 솔직하게 대답한다.

70년대부터 꾸준히 종교문화 및 母校를 위해 크게 기여한 수원동우회는 이미 2년전부터 수원동우회 명의로 후배를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 가까운 시일내에 교묘후배를 위해 회사할 예정일 뿐더러 東友會館 건립에도 최일선에 나서 현재 8백여인원을 모금하는 東國主義者들이 통일시 지역내에서 도 東國의 위력을 나타내는 저력을 보이는 支會이기도 하다. 同會 학원팀에 의하면 대의원 8명이 東大출신이라 東國인의 한 사람으로 상당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하



▲ 수원지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회원단 합여행을 하고 있다.

입을 주도하고 있다.

### ▲ 情으로 연결된 珍 끈한 모임

『어떤 모임이든지 다 필요하지만 특히 동향, 동창모임에서는 끈끈한 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회지는 딱딱한 공식모임보다 회원들간의 관호상제에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요. 슬픔도 기쁨도 다같이 느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라는 洪회장의 支會 문영방침에 따라 他 어떤 모임보다도 情으로 통진 모임이라는 評을 듣고 있는 同會支會는 1년에 한 번정도는 꼭 회원이 되어 여행을 가서 情을 다지는가 하면, 회원들의

관호상제에는 회원들이 꼭 참석하는 것은 他 支會보다 더욱 격하게 문영하고 있다고 한다. 記者가 방문한 날에도 수원에 새로이 보금자리를 잡은 金東鎮(79·법학·수원지방법원 판사) 등등 집들이며 환영식을 부시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앞으로 원주자 및 자유업자를 중심으로 수원文會를 더욱 강화하여 80주년을 넘긴 母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總동창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 母校의 발전과 總동창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계

### 업 (터미널)

◇總務 ◇임원 ▲李性成(74전기, 76경석) ▲한도석(72·전자공) = (주) 삼봉실업대표 ▲윤웅섭(65·법학) = 안산시 관산중 ▲정복(81·수교) = 수원 송현여중 ▲황규구(74·체교) = 동양석재 ▲김진옥(61·국문) = 오선여자중고 ▲김상길(53·정치과) = 충장좌씨회 회장 ▲문태식(49·전문부) = 충동창회부회장 ▲김동진(57·법학) = 충동창회부회장 ▲최유성(64·국문) = 광역전자 경기지사지사장 ▲홍정기(52·정외) = (주) 페이퍼 콘트론티커 대표 ▲이덕(80·정외) = (주) 페이퍼 콘트론티커 ▲이희상(60·법학) = 새가정诸葛亮 母校 원장 ▲김태호(74·농학과) = 중앙종묘 김용구(74·경영) = 중앙기기구 ▲한승구(65·법학) = 환경정화 ▲(68·식공) = 한성상회 ▲박성훈(74·법학) = 박성훈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진(79·법학) = 조정환(44·법학) = 수원 지방법원 ▲이용재(70·수교) = (주) 금강이상(71·식품공학) = (주) 시래김환진(80·경영) = 디시랜드사장 ▲최홍기(65) = ▲장희삼(68·식공) = 수원농협 ▲이규종(80·수교) = 수경고조 ▲조성대(79·수교) = 수원농협 ▲정윤호(66·법학) = ▲유소규(70·경영) = ▲박오순(74·법학) = 공군 법무판서 실장(대위) ▲조원빈(71·식공) = 에어비식품 생산이사 ▲홍남표(71·농학과) = 유명준(70·행정학과) = 신관식(65·법학) = 수원교도소 직업과장 ▲조정곤(62·법학) = 수원사법서사 ▲김강호(62·경제) = 수원대 행관판관

속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洪회장은 東國의 이름으로 묶여진 모든 이는 수원에 를르면 꼭 방문하여 동문의 정을 나누어야 된다고 記者的 순을 잡고 말하기도....

### 水原支部 주요임원

◇회장 ▲洪恩日(60·영문) = 민정당 중앙위원 ◇부회장 ▲김경애(59·佛教) = 대승주지 ▲윤대철(58·국문) = 신길중학교 교장 ▲이동우(61·법학) = 도청지방법장 ▲유천근(64·정치) = 개인사업 ◇고문 ▲유승권(59·법학) = 용마교통 대표 ▲조정환(49·史學) = 남도산



洪恩日 회장



趙正煥 고문



金貞愛 부회장

— 알 —

"종로에서 만납시다."

## 本會 사무국이전

• 이전일시 : 1987년 2월 7일(土)

• 이전장소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 이전전화번호

(代) 733-3993 733-3991~3

※ 본회 사무국이 1987년 2월 7일 本會의 發展과 동문상호 교류확대를 위해 시내의 중심으로 이전하기에 일련드립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會長 鄭在哲

■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절감  
엔진출력증가/수명연장  
■ 적응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錦·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자동차 김종점검 및  
검사대행  
자동차보험 계약공정  
견인차(대 소형)주아봉사  
자동차보험 업무취급  
온너드라이버 특별서비스

\* 전화주상당한영\*

635-3651~3  
635-2828

● 오성공업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717-46 (정비단지내)

### 남성복전문점

JM 미네소타  
MINNESOTA

■ 신사복·콜비·Y자셔츠  
■ 단체복·주문복 일체  
■ 베이비·벨트·지갑등  
액세서리

전화주문화영  
TEL: 275-4564

대표朴順吉(74·국문)  
서울·중구 을지로 3가  
(지하상가 3~17호)



朴完一・副会員会長

오늘은 동창회에서  
동창회장을 중심으로  
동창회를 마련기금조  
성등 장족발전을 이  
루하고 있어 봉분으로  
서 매우 마음든든하  
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람들에겐 누구나  
고향이 있듯이 사회인  
들에게는 자신의 인  
격을 도약한母校가  
있읍니다. 따라서 동  
문들은 우리 모교가東

## 기쁠도 슬퍼도 함께 하는...

국대학원에 보다 긍  
지와 보람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모든이들이 회  
비협조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하  
겠습니다.

특히 동창회 모임이  
란 재학시절의 우정  
으로 빛어지는 것이니  
만은 돈과 명예를 가  
진 이들만의 사교장  
이 되기보다 그들이  
나 시골들 곳곳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동  
창들을 많이 찾아 험  
께 기쁨과 슬픔을 나  
눌수 있는 동창회 본래  
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것입니다.

## '87 母校와 同窓會에 바란다'

丁卯年 새이침 發展東國의 제언을 듣는다.

<無題>



南基一・副会員会長

總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자체내의 노력  
박차도 선행되어야하  
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 단과  
대학 동창회의 강화  
가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단대별 동창회의 활  
성은 大學 특성을 더  
욱 살리게되고 그특  
성은 東國大의 특성

을 대변할수 있는 초  
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발전을 위  
해서는 괴급한 시설  
투자와 좀더 개방적  
인 자세로서 東國발  
전을 도모하여야 하  
겠습니다.

검회이념은 꾸준히  
신려나가리 학교발전  
을 위해서는 지난친  
보수주의적인 사고에  
서 탈피하여 좀더 진  
취적이고 적극적인 자  
세로 東國이 활성화  
된다면 東國 1百年  
에서 세계 글지의 대  
학으로 부상하지 않  
겠는가 한다.



禹順伊・副会員会長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7만 東國인의 꿈은  
남달리 크고도 알  
차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80년의 꿈  
지않은 모교역사를 이  
룩하고는 동안 모든

동문들의 노력은 음  
으로 양으로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  
제 청교부부터는 1

세기를 채우는 한걸

## 여성동문의 적극적 참여에도...

을마다 더욱 따뜻한  
母校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동창회 모임  
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아울러 여성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도 어느 동창회  
인보다 월등했으면하  
는 바입니다.

물론 東女會를 中  
으로 현재 동국여  
성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지만 여기에 대  
한 충동창회에서의 축  
면자원이 더욱 가해  
진다면 東國여성의 참  
여는 더욱 깊길 진다.  
생각되어집니다.



崔準鎬・学生学長

예비동문이라 볼 수  
있는 저히 학생이 입장  
에서 보면 동창회는  
재학생과 기성세대  
의 동문들을 연결  
하는 중요한 기구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기  
금등으로 학교후배들

에게 많은 도움을 주

어왔으나 아직도 다  
소 미진한 부분이 있  
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87년  
도부터는 재학생대표  
들도 기성동문선배님  
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힘을 합  
쳐 동국의 발전을 모  
색할 수 있도록 했  
으면 합니다.

또 동창회관이 빠  
른 시일 내에 건립  
되면 더 활발한 유  
대환경을 가질 수 있  
게 될 수 있는지를  
학생과 동문선배 모두  
많은 관심으로 노  
력해야겠습니다.



鄭址鎬・学生学長

교육이 百年大計  
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나 그 인식만큼 뒷  
받침이 떠오르 힘은  
것도 또한 우리의 현  
실입니다.

요즘 더없이 국가  
적 정책외에도 대기  
업들이 각 대학에 많  
은 기금을 투자, 인

재를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 있는 사람  
으로서 우리 동창회  
에서도 이러한 계획  
을 추진, 학교와 나라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東  
국인의 투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에서도 배전의 노력  
을 펼쳐 동시에 동  
창회에서도 많은 투  
자가 있어주기를 기  
대합니다.



吳鎮模・副会員会長

開校 80周年을 맞  
이하여 더욱도 發展  
하기 위해서 기존의  
활동에 더 한층 박  
차를 기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東國의 우  
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고시에 많은 학생  
들을 냄수 있도록 하  
여야하며 눈높부에있

## 기존 동문회 주체를 더욱 강화...

어서도 1등할수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  
성하여야 한다. 이를위  
해서는 전동문들의 많은  
보탬이 필요한데 이  
보탬의 창구역을  
맡고있는 동창회의 사  
무국이 더욱 힘써주  
셔야 한다고 생각한  
다.

둘째로 기존의 조  
직을 더욱 강화하여  
각 동문간의 긴통과  
함께 호흡할수있도록  
하여야겠다. 이  
밖에는 많겠지만 이  
두가지가 선행된다면  
더욱더 앞한 東國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  
다.

현재 7만동국인 각  
계동문 등 일반 풍  
성하지 재학생들은 누



金勝培・学生学長

7만동국인의 친구  
여인 전동창회는 踵  
進 東國의 기틀의 해  
인 1987년에는 재학  
생과 동문과의 교류  
에 더욱 확대에 교  
적이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잠실운  
동창이라도 빌려 전  
동국인이 만나 화  
합의 미장을 이룬다  
면 지금보다는 더나  
은 선후배 유대관계가  
유지된다하겠습니다.

## 全東國人이 만나는 새로운 계획이...

가 선배인지 잘 모  
르고 있는것이 현실  
이다.

이같은 것은 출  
업분과 재학생과의  
교류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원래 많은  
인원이라 자주 모이  
는 것이 힘들다. 할  
지라도 1년에 한번  
쯤 전동국인의 단체  
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잠실운  
동창이라도 빌려 전  
동국인이 만나 화  
합의 미장을 이룬다  
면 지금보다는 더나  
은 선후배 유대관계가  
유지된다하겠습니다.



康太辰・学生学長

「대불연」 회장·불교 4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동창회가 교세신  
장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제생들은나 출입  
한지 얼마 안되는동  
문들이 東國愛라는입  
장에서 미온적인 태

도를 갖고 있는 것은  
그같은 침체현상에 원  
인이 있다고 보였을  
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이  
나 취업등 동창회  
결속을 보다 기강  
게 느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각 학과 및 단  
대학 동창회도 활성  
화시켜 재학생과 선  
배동문들 간의 우의  
와 유대관계를 더욱  
진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대우자동차(株)**

“며칠 개성 함께 달린다”

- 맵시 - 나
- 로얄XQ
- 프린스 1.5
- 로얄 프린스
- 로얄 싸롱
- 싸롱 슈퍼
- 월드카 (트랑) 판매개시
- \* 중고차 증가

판매대리 : 崔鉉石 (74영업)  
TEL. 544-1928 / 1128  
(아간) 487-7539  
상남구 논현동 88-7  
(고려 B/D 1층)

**신봉·진설·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외국 수입견  
교환사육상담  
각종 겸구 취급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경제)  
중구 충무로 57-3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桃園꽃집**

화원, 꽃바구니  
생화, 신부화  
화분, 동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25-2  
진양빌딩 3층 42호

**금은·보석·시계  
三正堂**

화원, 꽃바구니  
생화, 신부화  
화분, 동서양란

TEL: 779-3360  
서울·중구 명동지하상가 마6호  
대표 金基俊 61 경제

**東國人은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영문)  
776-7895 ~ 7  
752-4396 ~ 7  
삼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lt;28&gt;

## 夫婦동문

◇金東鎮  
<79· 법학·  
수원지방법원판사>◇安順德  
<79· 무역>

## 첫눈에 반한 천생연분

『캠퍼스에서 우연히 화장기 없는 검수한 차림을 한 선동한 여학생을 보았지요. 당시 고시준비로 그 방에는 무관심했는데 유탄이 마음이 놀리더군요. 아마 그때 이미 나의 마음의 반은 그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할까요?』 서글 서글한 눈에 현직판사는 선임감을 일순간에 불식시키는 듯한 언변, 선내에 대한 예의가 까듯하다는 편을 듣고 있는 金東鎮(79· 법학) 동문은 지난 76년 모교 2학년에 재학중 安順德(79· 무역) 동문의 첫인상을 이렇게 떠올린다. 『며칠 생각하다 무예교 친구를 매파로 선정하여, 학교앞 다방에서 만났지요.』

첫만날이라 그런지 내가 못나서 그런지 시큰둥한 표정이어서 일순간 잘못되어 가는 구나 하고 걱정도 했지요. 그런데 천우신조인지 또 만나자는 제의에 응해주어 상당히 기뻤습니다.』 라 밝히는 김동문부부는 경기고와 결기여고 출신의 54년생 동갑나기....

## 매파 마저 모르게....

고시공부를 하는 처자라 자주 데이트를 못했다는 金동문부부는 한달에 한두번 밤에 만나 주로 비원에서 데이트를 즐겼는데 안동문도 자신을 이해하고 만날때마다 金동문의 마음을 인정시켜주는 조언을 해주어 金동문이 공부에

## 매파도 모르게 校外서 다진 사랑

## 3초만 마주보면 웃음터져 부부싸움 못해봐

친절하는데 큰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왠지 학내에서 만나는 것이 쓰스娉고해서 주로 학교밖에서 만났지요. 다방에서 만나서 주로 고궁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 당시 비원은 우리들의 데 이트코스로는 아주 좋았지요!』라고 연애시절을 회상하는 金동문부부는 첫만남에 혀현한 공훈(?)을 세웠던 매파조차도 金동문과 安동문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보인(?) 속에서 둘만의 情을 다져왔다는 당시 무역학과에 흥일질이었던 안동문은 말수가 적고 수줍은 용모를 지닌 전형

으로의 합격을 알려주는 青信號가 생각되어 상당히 기뻤어요.』 대학 3학년 재학중 사법고시에 최종합격증까지도 수제였던 金동문은 국사공부를 하면서 崇煥가 좋아서 연애시절 이미 2세의 이름을 元煥로 지어 놀 정도로 완벽한작전(?)으로 진행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 친구같은 임교부부

79년 5월 결혼하고 사법연수원 보직발령시험 관계로 신혼여행도 1년간 연기했는 金동문부부는 다른 사람처럼 부부싸움 한번 크게하지 못했다.

많다면 동문, 동기부부의 장점은 말하기도 한다.

현재 슬하에 7살난 아들원우와 5살난 딸 원진을 두고 수원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金동문 부부는 남매도 東國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으나 부모의 유실보다는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 알맞는 대로 선택했다며 직업이나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맡기며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밟기로 하여 직업적으로 밀어주겠다고 밝혔다.

## 가족과 함께 즐기는 만능 스포츠인

바쁜일과 중에서도 시간을 조개어 골프, 테니스등 모든 운동을 즐기는 金동문부부는 모교의 운동경기가 있는 날이면 현장에서 응원을 가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TV서라도 응원을 해야하는 데서 빠져나온다. 개교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웅비동국의 시기를 맞는 모교에 대해서는『과거의 영광과 전통에 새마을이 밟고 있는 학생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그리고 동률들은 동률답게 각자 맘은 바스름을 되하여 踏進國의 雄辯始를 내밀을 때마다 밝이며 수원을 찾는 동문이 있으면 한번쯤 자신을 꼭 찾아달리며 오는 2월 4일쯤 짐들이 부 계획하고 있다면서 수원지부 통분회에 연신 전화로 초대하는 동국과 함께 쉬는 동문. <南>

##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바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끝 보내드려겠습니다.

▲鄭在雄(71경영)=진주시 배안동 7-6 국민은행 진주지점장(0591-2~2081)

▲康宇振(60· 경제)=삼우해운(주) 대표理事 서귀포시 서귀동 784-1

▲趙鍾根(55· 법학)=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74-1 이천전신전화국

▲李載根(72· 경영)=충남 아산군 신호에식장 대표(2-7362)

▲余銀奎(60· 영문)=경남 거창군 복산면 840-38 북성중학교 교감

▲정인재(78· 경영)=충구명동 2-31-1 청취별당 6층 럭키증권 종암지점 과장(778-4591)

▲정규봉(62· 경영)=경기도 파천시 별양동 36-4 호

▲문홍익(68· 식공)=제주도 산(주) 대표이사 제주시 건업동 1399

▲전용하(63· 상학)=전매청 남원전매소(0671-32-5710)

▲김영상(63· 법학)=서대문구 흥제 4동인왕 APT 2동 606호

▲정녀원(63· 경제=인천천) 남구 주안 1동 80 현대아파트 4동 1206호 (427-5547)

▲박관순(71· 정외) 광주직할시

시 시구 화장동 740-6 현내 APT 102동 710호

▲김진덕(80· 경영)=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APT 1동 405호

▲정형기(77· 경영)=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립 APT 6동 602호

▲양재경(85경원)=강동구 방이동 135-25호 3층

▲김선수(65· 경제)=경남 함양군 마천면 마천중학교 교장

▲김종영(76· 경제)=강서구 광합동 1번지 대한항공 객실승무부차장

▲송유웅(64· 정외)=강남구 신반포 주공 2단지 APT 240동 401호

▲김희찬(64· 상학)=강남구 도곡동 우성 APT 2차 14동 1302호 (568-5667)

**새로파악된 동국인**

▲신동기(64· 경영)=서부경찰서 대공과 경장, 은평구 녹번 117번지

▲양진식(65· 경영)=한국전기통신公社 계획국장 거제자제부로 100호

▲김광(64· 경영)(=강남구 역삼동 424-6 태신 B/D 3층 고려증권 영동지점 지점장)



▲내조와 외조가 넘치는 디정한 김동문부부. 원내는 자녀.

적 한국의 여인을 갖추어 뜻 님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나 하고 걱정도 했지요. 그런데 천우신조인지 또 만나자는 제의에 응해주어 상당히 기뻤습니다.』

## 안변한 작전(?)

金동문은 자신의 앞일까지 걱정하는 安동문의 성의에 감복, 安동문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난지 1년만에 둘째 결혼신청을 했다는 金동문은『제가 시험을 77년에 합격했는데 시험과기 6개월전쯤으로 저녁 10시경 사무공원에서 엮였지요. 그녀가 불쑥 결혼했으면 좋겠다』라 하니 잠시 당황하더니 그려하고 하더군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앞

모처럼 큰마음을 먹고(?) 싸울 한번 하려도 3초만 마주보면 웃음이나와 싸울수없다며 이것이 부부동둔의 작정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金동문은 79년 9월 법무관찰을 거쳐, 8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85년 김천법원 판사, 86년 7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발탁되는 등 신호를 캐시에서 이사하면서 보였지만 불평한마디 없이 내조를 해주었다고은 근히 安동문을 자랑을 하며 동문이며 동기이고 동갑나기 부부이다 보니 동문화에 나가 서로 특별待遇을 받을 뿐더러 어떤때는 친구같기도 해 서로의 의견이 수렴되는 경우가

“실속있고 품위있는 신물을 원하십니까?”



**新羅明과**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정우 (70· 경영)

세무사 鄭大鎮 (63· 법학)

稅務 상담 · 기장대리  
심사 · 심판 · 청구



전화 856-6182 854-5618  
856-4924 853-4635

세무사 정대진사무소

“전화 한 통화로...”

TEL 274-3103-7  
이전 914-6584

판매과장: 柳在善  
(70· 경영 · ROTC 8기)

현대생산차종: 엑셀 AMX  
프레스토  
CXL  
소나타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렌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金 一山 金 信  
金 金 金 金  
屬 屬 屬 屬  
商 商 商 商  
工 芸 芸 芸

信一金院: 서울·中区 乙支路 3街 251-3  
電話 266-6682, 265-3258

275-5615

斗山金院: 서울·中区 山林洞 152-2  
電話 265-1516

信一工芸: 서울·中区 乙支路 3街 251-3  
電話 265-1317

실내장식용금속판매

대표이사 金鍾葉  
(84· 경원)

## 치안본부장으로 영진



李永祚 동문

李永祚(58·법학)동문이 지난 21일 치안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와 가정의 질대적인 안정을 최우선의 치안업무로 삼겠

다』면서 어려운 시국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李동문은 특히 「국가와 개인이익의 공동추구」「법이 지배하는 사회」 등을 강조하며 「인간론」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절대공정·절대부사로 간단하지 분발하는 것이다』며 인권신장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李동문은 그동안 경북 도경국장 부산시경국장 서울시경국장을 역임하면서 치안유지에 일심써왔는데 현재 본회에서 특강을 마치고 오로라市

나대문, 종암, 을지로지점 차장, 부천지점장, 인천지점장 등을 거쳐 그동안 연지동지점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현재 본회 이사로 본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대만서 명예사회학 박사

金翰周 동문

金翰周(73·대학 견기대학 총장, 본회 이사)동문은 朝畿大學자재교인 美 美로라大學에서 특강을 마치고 오로라市

## 「東國라이온스 결성하자」



崔允植 동문 宋京宰 동문



宋京宰(61·경제 국제라이온스협회 J 지구부총재)동문과 崔允植(61·경제 83년도 본부 라이온스부총재)동문은 東國라이

온스를 조직하여 東國의 강한 응집력을 표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두동문은 現在 조직을 결성코자 입원진 선별 및 회원 도접을 위해 사제를 털어가면서 행활약 중인데 東국라이온스에 많은 회원이 입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회원자격으로는 東국의 출입자나 재학생 모두 된다.

韓貿開發(株) 대표이사 尹鎰均 동문

尹鎰均(69 행원, 행원 동창회장) 1월 10일 부로 韓貿開發(株)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尹동문은

69년도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공군 준장으로 예전 정보부 차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해 김포공항 폭탄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전 까지는 공항관리 공군 이사장으로 있었다.

한편尹동문은 본회 회장과 행정대학원동창회장으로 활약중이다.

올림픽기획단 3과장에 朴鍾浩 동문

朴鍾浩(60 정치)동문이 지난 16일 치안본부 올림픽기획단 3과장으로 영전했다.

그동안 첨무·서부경찰서장으로 청주시의 치안유지에 일익을 담당해온朴동문은 본회 청주지부 회장으로 활약해왔다.

(株)삼호 관리역으로 李正煥 동문

李正煥(62·경제)동문이 朝興銀行 연지동 지점장에서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삼호 관리

총무부 차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尹동문은 본회 회장과 행정대학원동창회장으로 활약중이다.

역으로 전보되었다.

## 前期 수석입학자와 함께

했다.

학력고사 314점 내신 3등급으로 경주립대 학부에 입학에 지원한 陸군은 고등학교

육종용氏(58)의 3남 2녀 중 막내인 陸군은 지난 5년간 전공과학과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채 떠돌던 생활을 청산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인 자신의 성격에 맞을 뿐더러 어려움을 떠나 유달리 흥미를 느껴왔던 한의학 공부에 자신의 모든 기재를 발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 마침내 갈길을 찾은 기분... 한의학 계속공부 大學교수가 꿈

를 졸업하면 81년과 82년 두 차례나 서울대 인문대학에 진학했다가 학업을 중단, 자신의 신세계인 한의학과에 입학했다는 陸군은 「새로운 각오로 대학생활을 알차게 꺼미겠다』고 말하며, 주위의 시선과 강요를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표정이 자못 신중했다.

대구의집과 멀지 않은 경주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할 수 있어 무었보다도 기쁘다는 陸군은 大學卒業 후에도 한의학 연구를 계속해 大學교수가 되고 싶다고 장래계획을 밝히며 東國의 가수이된 이상 東國으로도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밝혔다.



陸哲水君

『수신의 영광과 아울러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87학년도 母校 수석을 차지한 陸철수君(24·대구고교)의 모습은 신대륙을 발견한 풀 봄스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

朝興銀 종로지점장에 陳宗龜 동문



陳宗龜(63·經濟)동문이 朝興銀行 방산 지점장에서 종로 지점장으로 轉輔되었다.

陳동문은 소국민融盛委員長을 비롯 同은행 영업부, 여의도·수지점 차장을 역임하였고 역삼동 및 부전지점장을 거쳐 그동안 방산지점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현재 본회 이사로 활약하며 본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金翰周(73·대학 견기대학 총장, 본회 이사)동문은 朝畿大 와 자재교인 美 美로라大學에서 특강을 마치고 오로라市

## 同門동정

바쁜 일들에의  
近況이나  
提報이 주

「週刊 総合法律」 창간

金東正 동문

本會 회장 金東正(57·法學)동문은 격주간 「주간 総合法律」(合刊)을 창간, 2월 2일자 장으로 轉輔되었다.

盧동문은 60년 母校 경제과를 졸업하고 금융업계에 투신, 한국산업은행 대리, 차장들을 거쳐 그동안 同은행 성수동 예금취급소장으로 재직되었으며 現在 本會 理事로 本會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月刊】 第 119號

대문꼴에 몇몇의 시를 염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안개꽃연기」에는 「...나는 환자가 아니로소이다 / 그저 팔과 다리가 좀 쉬워 있음이요 / 그 한쪽을 부처님께 밟아놓고 있음이로다...」며 자 유로운 삶과 유희·문화·부속적 세계 관을 드러내는 60여편의 작품이, 「어느 가을의 해일」에는 「풀꽃설화」<西泉洞미니랄의 노을> 등 10여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浪동문의 아들 광성君도 모교 지리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東國 가족이기도 하다.

商業銀 화양동 지점장  
盧萬植 동문

盧萬植(60·경제)동문이 한 국 산업은행 성수동 예금 취급 소장에서 同은행 화양동 지점

장으로 轉輔되었다.  
盧동문은 60년 母校 경제과를 졸업하고 금융업계에 투신, 한국산업은행 대리, 차장들을 거쳐 그동안 同은행 성수동 예금취급소장으로 재직되었으며 現在 本會 理事로 本會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메디부문 인기상」

이경규 동문

이경규(84영영)동문은 구 달28일 있었던 MBC 문화방송 연기대회 상수상식에서 「코메디부문 인기상」을 수상했다.  
독특한 언어구사 및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했을 주고 있는 李동문은 지난해 「東國의 밤」에서 2부 행사의 사회를 맡아 홍보에 진剿을 하기도 했다.

호텔 지배인클럽 회장  
金昌煥 동문

金昌煥(67경영·73 행원)

동문이 지난 12월 26일 있었던 「한국관광 호텔 지배인 클럽」 87년도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金동준은 67년도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관광업에 투신, 세라토워커힐 식음료부장을 역임하였으며 85년 3월 1일 타워 호텔로 옮겨 현재 타워호텔 총지배인(이사)로 재직 중이며 本會 理事로도 활약 중이다.

최고 년 13.29%의 수익률 보장!

C P 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 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실효한 투자. 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영등포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표 771-06



학과	모집정원	지원수	결정
불인도철학	(50)	157	3.1
선교학	(25)	104	4.1
속성학	(25)	64	2.6
국어국문학	(60)	265	4.1
영문영문학	(50)	206	3.9
영문영문학	(38)	145	3.8
영문영문학	(38)	164	4.3
영문영문학	(38)	118	3.1
철학	(38)	150	4.0
미국영문학	(38)	227	6.0
영문영문학	(38)	889	23.4
영문영문학	(50)	279	5.6
영문영문학	(50)	189	3.8
영문영문학	(50)	154	3.1
영문영문학	(50)	175	3.5
법정외교학	(100)	208	2.1
법정외교학	(38)	81	2.1
행정학	(50)	105	2.1
행정학	(38)	89	2.3
행정학	(63)	145	2.3
부경학	(69)	178	2.6
부경학	(100)	212	2.6
부경학	(75)	135	2.8
부경학	(44)	107	2.4
부경학	(38)	160	4.2
부경학	(38)	288	7.6
농업생물학	(38)	160	4.2
농업생물학	(50)	212	4.3
전지자산	(50)	183	3.7
전기공학	(38)	191	5.0
전기공학	(50)	488	9.8
전기학	(50)	202	4.0
전기학	(38)	145	3.8
식품공학	(44)	152	3.5
식품공학	(38)	161	4.2
국어교육	(50)	355	7.1
국어교육	(50)	228	4.5
교육학	(50)	377	7.5
교육학	(50)	462	9.2
수학교육	(38)	312	8.2
수학교육	(36)	263	7.3
체육교육	(52)	266	5.1
체육교육	(37)	815	22.0
체육교육	(30)	409	13.6
체육교육	(41)	715	17.4
체육교육	(41)	995	24.3
체육교육	(41)	690	16.8
체육★	(60)	821	13.7
체육★	(50)	796	17.7
<慶州캠퍼스>			
불교(38)	110	2.9	
불교(62)	226	3.7	
불교(70)	198	2.8	
불교(63)	179	2.8	
불교(50)	226	4.5	
불교(50)	246	4.9	
불교(63)	194	3.1	
고미술사	(50)	155	3.1
고미술사	(38)	180	4.9
고미술사	(63)	195	3.1
미술(50)	124	2.5	
조전자재상	(75)	206	2.8
조전자재상	(50)	81	1.6
조전자재상	(50)	129	2.6
조전자재상	(48)	136	2.8
조전자재상	(58)	81	1.4
조전자재상	(22)	123	2.4
조전자재상	(22)	29	2.5
조전자재상	(20)	244	3.5
조전자재상	(66)	235	3.6
조전자재상	(70)	252	3.6
조전자재상	(66)	280	4.2
조전자재상	(35)	162	4.6
조전자재상	(92)	175	1.9
조전자재상	(50)	240	4.8
조전자재상	(50)	227	4.5
조전자재상	(3, 931)	19, 536	4.97
★표는 약간강화			

# 치열한 눈치작전, 급상한 커트라인

## 首席入學은 慶州한의학과 陸철수君

母校 87학년도 신입생 선발이 지난 12일 녹수고사와 면접을 마치고 22일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일단락이 어려 새 동국인 2천 4백 50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자까지 알려진 전기 일시 지원황을 총 1만 9천 5백 36명 지원 4·97대 1의 높은 천체경쟁률을 보였으며 (도표참조) 전체 수석합격은 학력고사 3번 14점을 얻어 한이학과에 입학한陸철수君이 차지했다.

또한 신입생들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잠실체육관 및 학교에서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는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게 되며 특히 대학원으로서의 인적자질 및 실천·사교방식 등의 함양을 위해 실사숙고를 거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실시되는 후기모집도 지난 10월 25일까지 접수를 모두 마감되었는데 1월 31일 현재까지 알려진 비에 의하여 전기 수시자에게 머금가는 고득점자가 다수 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며 오는 2월 3일 면접 및 녹수고사를 실시, 7일 이전까지는 합격자발표를 모두 끝나갈 예정이다.

### 「始林문학상」제정 3월 20일 마감 재학생限

慶州캠퍼스 始林면학회에서는 「始林문학상」을 제정, 작품을 현상공모로 한다. 「始林면학상」은 서울·慶州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詩(3~5편), 소설(8쪽·내외), 수필(20개내외), 문학평론(70개내외)을 대상으로는 3월 2일 작품을 마감하여 각 부문당선작은 「始林 제7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국의 문학에서 있는 예비東圓人。

### 母校 신년하례식

지난 1일 시무식도 겸해

87학년도 母校 신년하례경시부식이 지난 1일 오전 11시 吳仁甲이사장과 李智冠총장을 비롯한 전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날 하례식은 산케이에, 이사장 및 총장에 대한 하례에 이어 총장의 신년사, 사통서원들의 순으로 진행되어 정묘년을 맞는 東國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 ‘87 전체 교수회’의 2월 27일부터 경주서

母校 87학년도 전체 교수회의 회기 오는 2월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주 도큐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李智冠총장을 비롯해 南部水 부총장을 서울·경주에 재직중인 교수 총 333명이 모여 온 한해의 학사일정에 관한 전반적인 학사과 교수들간의 학술논의 및 학생들과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토론될 예정이다.

### 李智冠총장 訪美

2월 7일 학술교류차 母校 李智冠총장이 오는 2

월 7일 美國방문길에 오른다.

현재 母校의 오랜동안 자매 결연을 맺고 교수 및 학생들을 교환, 상호간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있어왔던 美 E·W대학과 보다넓은 교류방안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계획된 것이다.

한편 学총장은 이번 일정을 마친후 오는 2월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母校동탑부 新校 발전

전작 130m 수직길이 87m

母校 동탑한국연구회는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로 긴 수직동굴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비암 삼태이던 꼴바리굴의 전모를 밝혀냈다.

수직동굴이 발견된 곳은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동원리 대덕산 9부능선으로 전장은 130m 수직길이는 87m에 달했으나 낙석의 위험이 많아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 교수동정

▲姜泰遠(물리교수)=오는 2월 1일부터 88년 1월 31일까지 1년간 한국과학재단 학술 연구자로 활동된다.

▲金興培(농화교과)=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포지움 참석자 海美。

▲金昌浩(임화교과)=교수=학술 연구자 구립 2일 渡日했다가 지난 14일 귀국.

▲睦樹培(불교교과)=교수=한인도 학술문화교류자 구립 5일 인도로 출국했다가 지난 18일 귀국.

▲金昌虎(국사교육과)=교수=구립 8일 학술연구발표 및 사업모집자 渡日했다가 지난 18일 귀국.

## ‘87학년도 학위수여식

### 2월 25일 3천여명의 學士배출

8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 2월 25일(경주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고 대문동정에서 열린다.

이번 학사학위 수여자는 총 3천 1백 37명(본교 2천 1백 92

명, 경주 9백 45명)이며 석사 1백 38명, 박사 26명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밖에 수석졸업자 및 각 분야 글로지에 대한 수상이 있게 된다.

###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 世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269-1144 (直)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 설치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푸왕BD 510호

### 에 대한 모든 것

(783) 2707 · (782) 9721-2

\* 시내연수 - 3시간내 자산감부여

\* 렌트카 - 각종 차량 구비

\* 대리운전 - 24시간 대기

\* 보험 - 정비·기사일선

### 자동차 서비스라인 회원모집

### (株) 南陽企劃

代表 李鐘蘭

(경원 여학생회장·총무)



###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사업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맡기시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가장이나 회사에서의 각종 연회를 편리하고 풍위있게 치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을 더욱 미족스럽게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단위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언제나도 전화하여 주제와 예산에 맞추어

심실히 있으니 준비드릴 것을.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 출장 서비스가 번거로우신 분은 원하는 시설을 갖춘 프라자호텔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및 문의: 전화 771-1229 고화 7245-7249

서울프라자호텔

費회  
협회  
同窓會  
2월  
19일  
부터  
2월  
28일  
까지  
마감됩니다

7449  
8568

# 복싱은 투지의 경기이죠

김진영 복싱부코치를 찾아

느린 여느 다정다감한 이웃아  
저씨와도 달라바 없이 인터뷰  
에 응해주었다.

—코치생활을 해오시면서 가  
장 힘들었다고 기억되는 때  
는...

『무엇보다 적은 인원으로  
단체전을 하게되었을 때 그만  
역부족으로 눈앞에둔  
종합우승을 아끼게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으  
니 원은 없지만 우승컵이 눈  
앞에 어른거려 좀 악이 오르  
더군요』

—복싱하는데 있어 우리선수  
들이 보완해야 할 점이라면...

『우리 선수들은 모두 기본기  
는 잘 다져져 있으므로 체력  
보강단이 남은 관건입니다. 따  
라서 이번 겨울에는 체력훈련  
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전지훈련에서도  
이를 위해 전주 다과산길대에  
서 오전·오후로 하루두차례 쇠  
체보강과 스피드훈련을 튼튼히



『복싱이란 투지이고 곧 김  
인한 정신력을 전제로 한 최  
대의 체력을 나타내는 경기입  
니다』라고 먼저 자신의 운동  
관을 다부지게 표현하는 김진  
영(44)母校 복싱코치.

11년째 복싱부에 箱을 두고  
있으면서 활출재·김광선등 기  
리성같은 한국권투계의 巨木들  
을 키워온다는 김코치는 막상  
기까이에서 보니 부인 최복순여  
사(40)와 재연(15), 영연(13)  
숙연(9)의 난난한 가족을 거

## “성화빌딩에서 만납시다”

사무국이 이전합니다

모교 후문앞 大起ビル 60  
6호 자리잡고 1년 가까이  
동문여러분과 함께했던本  
會 사무국이 오는 2월 7일  
종로 2가 성화빌딩으로 이전  
할 계획임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의 전화번호도  
이전판례로 733-3991에서 39  
93까지이며 대표전화가 733  
-3993으로 변경되었으니 동  
문여러분들이 적으로 없으시길  
바라며 사무국이 이전한 후  
에도 기존과 같이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東國결집력에 탄복만...

86東國人の 밤에서의 本會  
總務장의 통증회관건립 모금  
운동제의에 흥을 끊는 각계 동  
문들의 열화와 같은 성의  
로 東國의 殷殷한 情에

그저 감사 할뿐...

특히 申茲環 회장을 비롯한  
상임회원들이 수합을 전시함으로서  
얻는 수익금을 통증회관건립



東國大同運動委員會

기금에 보태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시중은행동문들을 비롯  
하여 각 지방 동문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성금이 달지  
하고 있는 한편 일반동문들도  
어떻게 하면 동창회관 건립

“오른 커트라인에 喜悲교차”

에 참가할수 있는가를 문의하  
는 전화가 속출, 본 동동  
동子 그저 동국인의 결집력  
에 탄복, 탄복 탄복....

기쁨과 슬픔의 교차로

그 어느해 보다 눈치작전  
이 치열했던 을 대학일시에  
서 모교의 학계커트라인에  
전보다 급상승, 온 동국가족  
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나 본회  
사무국에서는 한편으로 시무룩  
하기도, 내용인즉 원래 大學入  
試의 눈치작전이 실하다보니 동  
문들은 본회를 방문상의하여  
원서를 제출했으나 동문 2세  
들의 합격률이 극히 저조했다는  
것. 동문 2세들의 접수도 예전  
같으면 모두 합격할정도의 득  
점이 있는데 커트라인의 급  
상승으로 秋風洛葉이 되었  
다고 아무쪼록 명년입시에는  
예비고사 3백 40점 이상만 모교  
에 원서를 제출하면 합격할듯.

때도 있지만 특히 전지훈련의  
경우는 제 휴가 때 기계되니까  
—제가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짚자고 싶네요.

『워낙 새벽이고 밤이고 근  
무시간외의 일을 많이 하다보  
니 가끔 아이들이 물령을 할

하고자 했습니다.』

—선수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시다보면 가족들의 불만도  
줄을 것으로 짚자고 싶네요.

『워낙 새벽이고 밤이고 근  
무시간외의 일을 많이 하다보  
니 가끔 아이들이 물령을 할

라시는 일이 있다면?

『선수들에게 오락시설과  
도서실등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설비가 학  
교내에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이것만 보충된다면 선수들의  
사기는 더욱 진작될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끝으로 아마복심의 길을 걷는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지지만 계속해서 지도자를 따라  
열심히 또 열심히 연습만 해  
준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을나  
다. 성과는 언제나 자신들이  
풀린 피와 땀만큼 나누나  
되어 있으니 밀립니다』【竣】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소설 「태백산맥」 2부 짐필

趙廷來 등문

趙廷來 (66年) 등문의 대히  
소설 「태백산맥」 제 2부가 이달부  
터 「한국문화」에 연재된다.

지난해 10월 1부 3권이간  
행되어 文學界的 주목을 끌고  
있는 이 소설은 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사건을 분단비극의  
시발점으로 삼아 당시의 사회  
주의자·경찰·지주·소작인등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괴착계급의  
민중의 식과 이에 흥을 모기거나 등을  
인간적 차원에서 묘사하고 있다.



1988 SEOUL  
Olympic Games  
1988 SEOUL 1988

# 小說英雄門

\*金一江  
옹김

®

갈수록 더 큰 英雄을 세우는 金庸  
小說의 최고봉 「소설영웅문」!

金庸  
大河歷史  
長篇小說



제1부·몽고의별 전6권完刊!  
제2부·영웅의별 전6권完刊!  
小說英雄門·제3부 中原의별 出刊!

제1부·몽고의별 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큰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박정파  
그의 연인 황용! 무수한 영웅호걸들이 출몰하는 어지러운  
대륙의 역사 속에서도 신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진짜 사나이들을 위한 大河歷史 長篇小說!

제2부·영웅의별 모순에 찬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지수한 사랑으로  
연인 양파를 英雄門으로 이끄는 소용녀!  
현대여성들의 애정관에 충격을 던진 너무나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의 神話!

제3부·中原의별 우환이 많은 人間世 속에서 大仁大勇의 心氣를  
키워가는 영웅 장무기와 그에게 사랑을 바치는 美人조민!  
사랑의 신성불가침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허무를 극복한 허무의 경지에 이르는 莊子의 소설!



\*제1부·전6권/제2부·전6권/제3부·전6권/각 330면 내외 \*각권 값 3,000원 \*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제1부·제2부·제3부 중 어느 것을 택해서 일으셔도 제미있읍니다.

處世學의 교과서, 政治學의 보감, 企業經營의 지침서, 鄭飛石作 小說孫子兵法!

小說孫子兵法에 이은 또 다른 力作, 小說楚漢誌!

인류사상 最大的 인생홍망극, 鄭飛石作 小說三國志!

## 小說孫子兵法

•전4권/각300면 내외/각권 값 2,800원/날권판매◆서점에 있습니다.

## 小說楚漢誌

•전5권/각300면 내외/각권 값 2,800원/날권판매◆서점에 있습니다.

## 小說三國志

•전6권/각330면 내외/각권 값 2,800원/날권판매◆서점에 있습니다.

# “東國大學校 同窓會 入住를 축하합니다”

## 서울의 심장부 종로 오피스타운에 자신있게 내놓는 애브뉴빌딩!

‘86, ‘88 관광코스로 지정받았습니다.

2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시설이 완비되었습니다.

어느 곳과도 연결되는 길목에 자리잡았습니다.

최고의 공간을 최고의 기능으로 조화시켰습니다.

최선의 관리와 최선의 서비스를 갖추었습니다.

**새로운 명물거리로 등장한 종로 애브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에서  
우리의 전통과 미래를 함께 엮어나감  
종로 애브뉴의 주인이 되실 분들을 찾습니다.  
분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적은 성화빌딩 분양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분양회원 모집중**  
**734-0051-5**



成和實業株式會社  
大京產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8번지

TEL. 734-0051~9

736-7447

대표이사 崔 穎 植 (經院 1期)

전무이사 李 知 映 (68 商科·經院 1期)